

메시지 2 신부의 건축

성경: 창 1:26, 2:7-10, 18-25, 계 19:7-9, 21:9-11

I. 하나님의 건축물은 성경 전체에서 중심적인 문제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삼일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갔다.” — 창 2:22.

- A. 성경 전체는 건축 설명서에 비유될 수 있다.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시작인 에덴동산에 관한 계시와 신성한 계시의 끝인 새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는 일맥상통한다.
- B. 성경의 이 두 부분에 계시된 것이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고,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이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 통제하는 원칙이다.
 - 1.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신성한 건축물(히 11:10)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건축 계획의 청사진이다.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 안으로 건축하셔서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재조성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갖고 그분을 대표할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으실 수 있다(창 1:26, 고전 3:9, 마 16:18, 삼하 7:12-14상).
 - 2.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라는 완성된 건축물을 보여 주는 사진이다. 새 예루살렘은 에덴동산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반영과 성취이다.
 - 3.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돌아오셔서 이기는 이들의 총체인 그분의 신부와 결혼하실 것이다. 이 시대에 이기는 이들에 의해 수행되는 이 건축은 왕국 시대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초기 완결을 위한 것이며(계 19:7-9), 최종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완전한 완결을 위한 것이다(21:2).
 - 4. 성령께서 모든 세기에 걸쳐 계속 일하심으로써, 이 목표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성취될 것이다. 그 때 이기는 믿는 이들인 신부가 준비될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될 것이다 — 마 26:29, 13:43.
 - 5. 단체적인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목적의 두 방면(창 1:26)을 성취할 것이다. 첫째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할 것이다(계 21:11, 비교 4:3). 둘째로, 이 새 예루살렘은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원수를 굴복시키고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것이다(창 1:26, 계 22:5, 비교 20:10, 14-15).
- C.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하와가 아담의 생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 바로 이 생명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실 수 있다 — 창 2:21-22.

II.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둘 사이에 상호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남녀 간의 다정한 사랑과 같다 — 요 14:21, 23, 롬 2:2, 31:3.

- A.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을 들여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통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그들에게 주입하심으로써 그들을 그분의 배필로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어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신다 — 시 119:140, 15-16.
- B.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주입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산출 하셨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 — 요일 4:19-21.
- C.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명을 살고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요일 3:14, 5:1, 2:5-6, 4:17.

- D. 우리의 타고난 사랑은 십자가에 두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타고난 사랑의 한 가지 차이는 우리의 타고난 사랑은 매우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 E. 우리는 홍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고 밀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신성한 사랑은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큰 파도와 같아서, 우리를 강권하여 그분을 향하여 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고후 5:14.
- F. 형제 사랑에 관한 계명은 옛 계명이면서 또 새 계명이기도 하다. 옛 계명인 이유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새 계명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때에 이 계명은 새로운 서광으로 비치고, 그 후에도 새로운 빛과 신선한 능력으로 계속해서 비쳐 주기 때문이다 — 요일 2:7-8, 3:11, 23, 비교 요 13:34.
- G.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엡 4:16).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듭난 영은 사랑의 영이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타락을 이기기 위하여 불타는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딤후 1:7).
- H.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고전 8:1하, 비교 고후 3:6)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표시이다(요 13:34-35).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반대된다(요삼 9).
- I.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혼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몸의 생활을 실행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혼생명을 잃어버리고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 요일 3:16, 4:17과 각주 5, 요 10:11, 17-18, 15:13, 엡 4:29-5:2, 고후 12:15, 롬 12:9-13.
- J. 사랑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 고전 12:31하-13:8상.

Ⅲ.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한 배필을 산출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한다.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의 예표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에 대한 그림을 보여 준다.

- A. 아담은 우주적인 참남편으로서 자신을 위한 한 아내를 찾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표한다 — 롬 5:14, 비교 요 3:29, 고후 11:2, 엡 5:31-32, 계 19:7-9, 21:9-11.
- B.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도울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 창 2:18.
 - 1. 아담에게 아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자신의 배필, 곧 짝(직역하면, 맞은 편 짝)이 되는 아내가 필요하시다는 것을 예표하고 묘사한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영원히 온전하시지만, 그분의 아내인 교회가 없이는 완전하지 않으시다.
 - 2.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담과 교회를 예표하는 하와를 둘 다 갖기 원하신다. 그분의 목적은 ‘그들이 통치하게 하는 것’(창 1:26)이다. 그분의 목적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더하여 승리한 교회를 얻으시는 것, 곧 마귀의 일을 이기신 그리스도에 더하여 마귀의 일을 전복시킨 교회를 얻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롬 5:17, 16:20, 엡 1:22-23).
- C. 하나님은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지으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가셨고, “그 사람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들과 들의 온갖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찾지 못하였다.” — 창 2:19-20.
- D. 아내는 반드시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남편과 같아야 한다. 아담은 가축이나 새나 짐승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짝, 곧 자신과 어울릴 수 있는 짝을 찾지 못하였다 — 창 2:23.
- E.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 예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한 짝을 산출하시기 위해 먼저 사람이 되셨다 — 요 1:14, 롬 5:14.
- F.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자, 그가 잠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 창 2:21.

1.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산출하기 위해 깊이 잠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배필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여 주는 예표이다 — 엡 5:25-27.
 2.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의미한다 — 고전 15:18, 살전 4:13-16, 요 11:11-14.
 3.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을 해방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며, 생명을 번식시키고, 생명을 번성시키며, 생명을 재생산하는 죽음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자라서 많은 밀알을 맺는 것으로 상징된다(요 12:24). 이러한 밀알들은 떡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 떡은 몸인 교회이다(고전 10:17).
 4.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던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었고, 해방된 이 신성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어 교회를 조성하게 된다 — 눅 12:49-50, 비고 롬 12:11, 계 4:5.
 5.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사람 안으로 일해 넣으셨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로서 그분과 어울리도록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 G.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 창 2:22.
1.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는 그리스도의 부서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 주는 예표이다(히 7:16, 요 19:32-33, 36, 출 12:46, 시 34:20). 이 영원한 생명은 창에 찢린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와(요 19:34),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어 그분의 배필인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한다.
 - a.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나왔지만,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은 피 없이 갈빗대 뿐이었다.
 - b. 그것은 아담의 때에는 죄가 없었으므로 피를 통한 구속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잠들어 계셨을’ 때에는 죄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는 우리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이었다.
 - c. 피에 이어 물이 나왔는데, 이 물은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흐르는 생명을 가리킨다(출 17:6, 고전 10:4, 민 20:8).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는 신성하고 흐르며 창조되지 않은 이 생명을 예표한다(롬 5:10).
 2. 창세기 2장 22절은 하와가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건축되었다고 말한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로 하와가 건축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부활 생명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표인데, 이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에게서 해방되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된 생명이다 — 요 12:24, 벰전 1:3.
 3. 참하와인 교회는 모든 믿는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총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이다. 그리스도의 요소 이외의 다른 요소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 창 5:2.
- H.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분의 짝이 될 수 있다(고전 12:12, 엡 2:6, 5:28-30).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순수한 산출물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부활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다.
- I.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되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하였다(창 2:24-25).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우주적인 남편이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아내인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결혼 생활을 하신다는 것을 묘사한다(계 22:17상).
- J. 끝없는 영원 안에서 그들은 신성하고 영원하며 비할 데 없이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한 영으로 연합된 생활, 즉 지극히 뛰어나고 축복과 기쁨이 넘쳐흐르는 생활을 할 것이다.